

기독교와 민족주의

全 聖 用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고 역사 안에 그 발을 딛고 서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사적 현실인 국가나 민족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 Luther)는 “나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독일국민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한국국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주의의 형성과정을 살펴 보고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서로 관계하여 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민족주의(Nationalism)는 어느 민족이 자신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의식하려하고 또는 스스로의 통일, 독립, 발전을 기도하는 사상 및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스 콘(H. Kohn)에 의하면 개개인의 최고의 충성은 으레 민족주의에 바쳐야 한다고 느끼는 심리 상태이며 민족국가야말로 이상적인 정치조직체인 동시에 문화창조와 경제상의 복지의 원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민족주의에서 사용하는 민족이란 개념은 무슨 뜻인가? 한 민족은 대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혈통, 언어, 역사적 전통을 가진다. 그러나 이

러한 객관적 요소는 민족형성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민족주의는 반드시 혈통적 동일종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들 국가는 열강들의 식민지 분할정책에 의하여 편의상 영토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민족이나 종족과 국경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종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복과 침략이 계속되어온 역사를 볼 때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객관성 요소는 민족형성의 보조적인 역할은 될 수 있지만 민족형성의 근본요소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심리적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헤이스(C. Hayes)는 민족주의란 애국심과 민족의식(nationality consciousness)이 결합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민족을 생물학적인 종족의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문화, 역사, 언어 속에서 생성된 특징과 개성으로, 파악하여 민족을 근대국가의 국민과 동일시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이란 어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소속의지라고 하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첫째로 19세기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서 자유주의와 함께 사용될 때 그것은 국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 또는 독립을 지향하는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의미이다. 이 경우는 세계주의, 개인주의, 무정부주의의 반대개념이다.

20세기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주의도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로 일단 국민국가가 형성된 다음에는 민족주의는 권력에 내재한 공격적, 침략적인 속성에 의해 자기나라의 특권과 세력확장의 도구가 된다. 이때는 전체주의, 소비니즘, 배타주의 등으로 변질되어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양태의 국가주의가 된다.

1차대전 이후의 일본, 독일, 이태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독재적 국가권력을 정당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국민주의와 국가주의를 동시에 표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진정한 민족주의는 대외적으로 민족의 단위의식과 주체성을 견지하고 대내적으로 민족성원의 참여와 분배의 평등 실현에 충실한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국가의 대외적 자주성과 국가성원간의 대내적 평등성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참된 모습이요 이상이다.

2. 민족주의의 형성

민족주의가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의식되고 또한 그것이 근대 국가의 행동규범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1789)이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서양근대사는 시민국가의 형성기이며 프랑스혁명으로 말미암아 유럽 여러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을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서 민족주의의 대두를 자극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중세기 900년간의 역사는 귀족과 승려 즉 귀족계급의 역사였는데 근세에 들어와서도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300년간의 절대왕정시대도 본질적으로는 귀족지배의 계속이었다. 이와같이 1,000년 이상 계속되어온 봉건제도는 중산시민계급이 중심이 된 혁명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이 혁명은 시민혁명 내지 민족혁명이었다. 신분제가 폐지되고 귀족지배는 끝이났다. 프랑스혁명은 개인의 해방과 보편적 자유를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정부를 지상에 최초로 실현시켰다.

그런데 프랑스혁명이후 유럽 전제군주들이 위협을 느끼고 연합전선을 펴게 되자 결국 나폴레옹의 군사 카리스마가 등장하였다. 나폴레옹의 유럽원정은 프랑스혁명의 이상인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전 유럽에 심고 전제에

서 신음하는 여러 국민들의 해방을 표방하였으므로 그의 원정 초기에는 전 유럽의 자유주의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프랑스인이라는 다른 민족의 침략 앞에 여러 국민들의 민족의식이 눈뜨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민족을 공격하고 독일과 스페인민족을 무시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저항적 민족세력 형성을 촉발하였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자들은 프랑스 민족주의가 대외정복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침략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의 침략을 받은 여러나라의 민족주의는 전쟁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부정적, 배타적, 성격을 반게르마니즘으로 변질되었다. 이것이 국가지상주의와 나치즘의 정신적 유산이 되었다.

이태리의 경우에도 이태리 통일이 완성된 후 파시스트가 집권하자 옛 로마제국의 재건이라는 환상 속에서 팽창적 침략적 제국주의로 변질되어 민족주의의 부정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아시아에서도 유럽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1867년 명치유신이 일어나 근대민족국가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중국에서는 유럽과 일본의 모델을 본받아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났으며 손문에 의한 중화민국이 건설되었다.

3. 한국의 민족주의 형성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민족주의의 발생 즉 민족이라는 단위의식이 현저하게 체계화 한 것은 서구와 일본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같은 종족, 언어 및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단편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일어난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한국의 민족주의 형성은 크게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 1기는 개항 이후 3·1운동까지, 제 2기는 3·1운동 이후 해방까지, 제 3기는 8.15 해방이후 5.16까지, 제 4기는 5.16이후 현재까지이다.

(1) 제 1기 : 제 1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었다. 첫째, 조선조의 구질서와 구체제를 수호하려는 척사위정(斥邪衛正)파와 둘째, 외부로부터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 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고자한 개화파, 세째,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원하는 동학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항로(李恒老)로 대표되는 척사위정파는 기존체제를 수호하고 사대주의를 고수한 보수주의자들로서 민족주의 세력으로 볼 수 없다. 둘째, 개화파에서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켜 무력으로 집권하여 급

진적인 체제개혁 내지 근대화를 시도한 민족주의적인 이상을 가졌으나 주체적 역량도 없이 외세의 지원에 의존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마지막으로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역사상 최대의 농민운동이었는데 그것은 서양세력을 배경으로한 천주교와 일본의 침투에 항거한 민족주의의 대내적 주체성과 평등성의 발로였다. 동학사상은 전통사회를 부수고 근대적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혁명 이른바 3중혁명을 지도하는 정치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배층과 토착 민족세력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야합에 의해 동학혁명은 저지되었다. 그 후 개화파만이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 운동을 계속하였는데 독립협회 등의 애국계몽운동은 반일사상과 함께 민중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을사보호조약이후 사회운동이 탄압을 받게 되어 민중교육으로 방향을 돌려 1909년까지 2,250개의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2) 제 2기 : 한국민족주의 제 2기에서는 3.1운동이 그 이전의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을 종합하고 그 이후의 민족주의 운동이 발원하는 원천이 되었다. 3.1운동의 특징은 계층, 지역, 신앙, 신분, 성별을 초월하여 전민족이 일치하여 민족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민족

기독교와 민족주의

주의의 지향가치로서의 여러 원리가 추구되었는데 상해임시정부에서는 민주공화제, 인민주권, 대통령제 등을 표방하였다.

나아가서 3.1운동을 계기로 한국민족주의는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1920년 조선물산장려운동을 벌여 유형적 민족자본형성과 아울러 인재양성을 위한 민립대학 설립운동도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3.1운동의 주체세력이 학생과 종교인이었다는 것이 주목할만하며 특히 기독교계 지도자와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

3.1운동이후 민족역량의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운동이 일어났으나 국내에서는 날로 강력해진 일본의 세력에 의해 민족세력은 약화되었다. 한편 3.1운동이후 독립운동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 및 그 운동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는데 1923년 동경에서 조직한 북성회 등이 전국을 돌며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보급하였으며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운동은 민족의 이익을 계급의 이익에 종속시켰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간에는 조화될 수 없는 간격이 있다.

(3) 제 3기 : 해방이후 남북한의 분단으로 민족주의의 수난기를 맞이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일당이 조만

삭 등의 민족세력을 제거하고 독재체제를 수립하여 6.25라는 반민족적 전쟁을 일으켰다. 남한에서는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남로당의공산세력과 김구 등의 임시정부의 민족진영이 제거되었다.

이승만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정치적 독수와 독재 및 한민당의 친일 민족반역자들의 흡수 등은 반민족이었다. 4.19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독재에 대한 항거였으며 이승만의 하야로 자유당 정권은 쓰러졌다. 그러나 4.19이후 민주당은 강력한 통치력 구축의 실패와 혼란으로 5.16을 불러들였다.

(4) 제 4기 :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반공과 재건이라는 구호아래 참신하고 강력한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후보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구호아래 민족주의 의식의 확립위에 외국의 사상과 체도를 우리의 체질에 알맞도록 적용 실시하고자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래의 종속일변도의 지양과 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토대 위에서만 확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내세워 진보적이고 주체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윤보선후보에게 승리하였다. 그러나 제3공화국의 진취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하였음에도 그 말기에는 유신체제의 일당독재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분배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초기의 민주주의 노선은 변질 전략하고 말았다.

민족주의는 대외적인 독립과 자유라는 주체성과 함께 대내적인 평등과 자유주의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하여야 하는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민족적 과업이 앞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한국 민족주의의 지상과제인 민족통일을 향한 올바른 길이 될 것이다.

4. 기독교와 민족주의

고대사회에서도 민족적인 단위의식이 발생했는데 특히 히브리인은 근대적 민족주의의 특징인 선민사상,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동된 의식, 민족적 메시야니즘 등을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민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으로 오늘날까지 그 주체성을 견지하고 있다.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야니즘을 신봉하였는데 바리새파와 에세파는 마케도니아 치하에서 안티오

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유대의 헬라화 정책에 항거했던 하시딤(Hasidim)의 후예들이었으며 특히 켈롯당은 유대의 독립과 천국의 실현을 위하여 폭력적으로 투쟁한 정치적 혁명가들이었다. A. D. 66년 전쟁을 일으켜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여 예루살렘에서만 110만명이 죽었고, 마사다(Masada) 산성에서는 900여명의 켈롯당원이 처절하게 옥쇄하였다. 예수의 제자중 '열심당 시몬'이 곧 이파의 당원이었다.

그러나 예수자신은 폭력을 거부한 평화의 왕으로 이땅에 왔으며 민중을 억압하는 자들과 악한 제도의 개조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대신 예수는 직접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민중에게 1마일 짐을 나르게 하는 군인의 상황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민중 자신의 상황을 다루었다. 그들에게 뛰어들어 스스로 민중이 되어 그들과 동행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료하였다.

예수의 중심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나라의 법은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발전에 의해 성취되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전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사상은

기독교와 민족주의

분명히 민족주의와 거리가 있다. 물론 민족주의의 이상과 목표는 예수의 사랑과 정의의 사상과 일치하며 기독교 정신이 민족주의 형성의 사상적 근원과 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폭력혁명과 배타적 민족주의 및 인간중심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는 분명히 기독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사상을 발전시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어느 민족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보편주의, 세계주의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교직자가 국가의 지배계급이 되자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봉사하게 되고 그것은 곧 기독교의 부패와 변질을 의미하였다.

크로체(B. Croce)에 의하면 중세기 동안 서구정치에서 많은 군주와 정치인을 난파시킨 카톨릭교회의 역사적인 오만과 자부심, 세속국가로부터의 독립, 초 국가적인 교황의 권위는 근대 국가의 자유주의적 풍토 속에서도 쉽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카톨릭 세력은 근대의 어느 국가에서나 자유주의의 운명과 생과 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했다. 즉 가톨릭교회는

저들에게 이로우면 자유주의가 말할되는 독재체제나 전체체제와도 서슴치 않고 동맹했고 연합했으며 그러한 예는 19C, 이래 오늘날에도 중남미의 독재체제의 상황하에서 허다히 볼 수 있다.

한때 로마교황청과 비스마르크 간에도 불화가 있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고 가톨릭교도를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하였으나 결국 양측의 화해로 끝났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종교의 정치에 대한 개입의 쇠퇴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많은 수정이 가하여졌고 특히 제3세계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결속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경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일제에 대한 저항세력의 구심점이 되어 민족주의와 공동보조를 취하였으며 특히 3·1운동은 그대표적인 사건이다. 해방이후 북한공산집단에 의한 박해의 대상은 기독교를 중심한 민족진영이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권 기간에 기독교는 독재권력과 밀착하였기 때문에 민족세력의 비판을 면치 못하였으며 제3공화국 말기에는 자유화와 민주화를 위한 인권투쟁을 통하여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기도 하였다.



맺는말

한국 기독교는 공산집단의 재침위협이 상존하는 분단상황 하에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안정을 견지하여 대외적 독립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목표의 성취를 지향함으로써 본래적인 민족주의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기독교는 변질되기 쉬운 민족주의의 속성을 잘 파악하여 또 다시 이 민족이역

사적인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근 단군성전 건립문제로 여론이 양분되고 있는바 기독교는 민족정신 함양과 민족적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민족주의적 이상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민족주의가 배타적, 국수적, 폭력적, 위선적으로 쉽사리 변질하였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단군성전 건립의 민족주의적 발상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궁극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민족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신대, 조직신학 전임강사)

신 간 안 내

평신도와 목회자의 필독서!

수년간 팔천에 인기리에 게재됐던 내용을 보강하였다.

알기쉬운 **기독교회사**

이대섬저, 값 2,500원

주문 및 문의처 : 총회본부교육국 562-4139
호산나서점 966-7982
599-8905